

행동하는 거고정신
실천하는 빛과소금



2018년 거창고등학교 “총동문의 날 행사” 성황리에 개최 !!

2018년 거창고등학교 총동문의 날 행사가 6월 16일 모교 교정에서 "행동하는 거고 정신, 실천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4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동문의 날을 통해 동문 선후배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것과 죽전만당에서 배웠던 빛과 소금의 거고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 속에 배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두 가지가 지향점이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4회 동문님으로부터 68회 동문이 될 1학년 재학생까지 64년간의 세대 차이가 나지만, 죽전만당에서 예술제, 봄가을 소풍 및 겨울철 거고농장의 토끼몰이 등 같은 추억 때문인지 64년이란 시간의 벽은 금방 허물어졌다.

이번행사는 배구, 족구 등 체육행사 외에 커플 줄넘

기, 신발 발로 던지기, OX 게임, 투창 등 다양한 경기로 남녀노소의 여러 동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였다. 재학생들은 대동놀이, 사진전시회, 노래, 춤 등으로 동참해 주었다. 특히 재학생 노래는 이번 봄소풍에서 히터 쳤던 1학년 3반 혼성 듀엣(김시온, 정유송)과 1학년 2반 김민성 외 3명의 노래와 율동이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과 어우러져 총동문의 날 흥을 끌어올렸다. ?

또한 이번 행사는 서울(회장 24회 강신기), 부산(회장 홍병철 28회), 대구(회장 주시찬 27회), 창원(회장 김복희 26회), 합천(회장 하상호 26회), 진주(회장 전석규 24회), 거창(이성화 25회), 대전(회장 정병섭 34회), 울산(회장 하상순 22회), 산청(회장 이병열 26회) 등 각 지역별 동문회에서 후원해 주었고, 기수별 분담금 외에 15회 동문회, 24회 동문회, 거창 거고 의사회 등 단체에서, 또한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후원해 주었다. 특히

거창지역 동문회에서는 행사 준비에서부터 점심 준비, 행사 진행, 행사마무리까지 적극 협조해주어서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한편 총동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 기수는 4회 동문들로부터 40회 동문들까지이며 20명 이상 참석한 기수는 18회, 24회, 25회, 34회로 4개 기수였으며, 30명 이상 참석은 26회, 27회 기수였고, 40명 이상은 28회로 43명이 참석하여 최다 인원 참가 기수가 되었다. 앞으로는 40회에서 50회까지도 기수별 회장단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참여를 당부한다.

총동문의 날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모든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 총동문의 날 행사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 본다.



| 동 | 문 | 회 | 장 | 인 | 사 | 말

“빛과 소금” 되시는 동문 여러분!

“빛과 소금” 되시는 동문 여러분!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바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어서 더욱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9년도는 거고 제66회 116명이 졸업하여 졸업생이 9,933명이 되며, 69회 신입생이 입학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고 더 큰 배움의 향로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희망찬 2019년에 거고총동문회에서는 동문들의 생생한 생활의 역사를 기록하여 공유하고 보존하기 위해 동문회보 4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회보 발간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후원해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동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명의 종소리 높이 울리는 죽전만당에서 꿈을 키워온 동문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24대 거고총동문회장 직을 수행한지도 벌써 2년이 되어 66회 졸업식 행사를 끝으로 총동문회장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군 출신으로 2010년 전역 前까지 3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참전하는 등 군 업무 수행상 동문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나, 전역 후 행안부에서 공무원 생활하면서부터 재경동문회장 2년, 총동문회장 2년 등 4년간 동문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문회를 위해 미력하나마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에 나름대로 큰 보람을 느낌과 동시에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어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격년제로 실시하는 총 동문의 날 행사에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겠습니다. 족구, 배구 등 체육종목 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수의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랑운동회 식, 간이음악회 식, 전시회 등의 재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40회 이상

50회까지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학교본부, 총동문회, 지역동문회 간에 더 많은 소통과 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총동문의 날 행사에 학교본부와 지역동문회에서 많은 참여와 협조가 있었으나, 향후 지역동문회 송년모임 등에 학교장이나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하여 소통하면 각 동문회가 더욱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총동문회 및 지역동문회 등 각종 행사는 기수별 연 분담금과 후원금 등으로 실시되는데 30주년 홈커밍데이 이전까지의 기수들은 동문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여 기수별 분담금 대신 각 개인별 년 1만원씩을 총동문회비를 납부토록 홍보하였으나 몇 명의 동문들만 납부하는 등 아주 저조한 실태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동문회에서는 기수별 동문회를 졸업과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19년 66회 졸업생 116명에게 개인당 1만원씩 해서 116만원 통장을 만들어 66회 동기회장 등 임원진(임기 10년)을 구성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름도 빛나다 거창고등학교 동문 여러분!

부족한 제가 재경동문회장 2년, 총동문회장 2년을 맡는 동안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동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창고등학교 동문회는 거창고등학교와 더불어 영원할 것입니다.

거고에 대한 애정! 동문회에 대한 열정! 동문들을 위한 헌신! 하시는 동문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대 거창고등학교 총동문회장 이상대(24회)



▶ 총동문회 동정

2017

- 1. 24 | 24대 총동문회장 이상대 (24회)
- 2. 1 | 24대 총동문회 임원진 구성
- 4. 15~16 | 2017년 총동문회 임원진 및 지역회장단 워크샵 주관
장소 : 대전 유성 자운레스텔
- 5. 20 | 재경동문회 북한산 산행 참석
- 5. 23 | 스승의 날 기념 거고 선생님 격려 만찬
- 6. 10 | 제9회 거고 총동문골프대회 참가
- 11. 4 | 재경 아유회(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참석
- 11. 10 | 재경 대학생 동문회 주관
장소 :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영프라자 / 신촌 철길 왕갈비살
- 12. 1 | 재대구 지역 동문회 송년회 참석
- 12. 7 | 재부산 지역동문회 송년회 및 부산동문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8

- 2. 8 | 거고 제65회 졸업식 참석
- 3. 9~10 | 2018년 거고총동문회 임원진 및 지역회장단 워크샵
장소 : 대전 유성 자운레스텔
- 5. 31 | 스승의 날 기념 거고 선생님 초청만찬
- 6. 15 | 제10회 거고 총동문 골프대회 참가
- 6. 16 | 2018년 거고총동문의날 행사 주관
- 11. 23 | 2018년 재경 재학생 동문회 주관
장소 : 신촌 철길 왕갈비살
- 11. 29 | 2018년 재경 동문회 송년행사 및 재경회장 이취임식 참석
- 12. 7 | 재대구 동문회 송년행사 및 대구동문회장 이취임식 참석

2019

- 1. 10 | 총동문회장 선임 관련 고문단 회의 참석
- 2. 11 | 총동문회 이사회(24대 총동문회장 이임식)
- 2. 12 | 거고 제66회 졸업식 참석
(졸업생 선물, 총동문회장 상 수여)

거창고등학교 총동문회는 동문들의
광고비와 협찬으로 '거창고동문회보'를
발간합니다.

우리은행 : 거창고등학교 총동문회
1006-501-335631

총동문회 사무실 :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풍림VIP텔 401호

거창고등학교 총동문회 공식웹사이트 & 페이스북

www.geogoalum1.com

총동문회 웹사이트
거고인사식 인물동정 행사 소모임
자투안내 사업연계

facebook.com/geogoalum1

총동문회 페이스북
거고인사식 인물동정 행사 소모임
자투안내 사업연계



위임목사 류 영 모

- 거창고등학교 졸업
- 장로회신학대학교(B.A, M.A, M.Div)졸업
- 리전트대학교 목회학박사(D.Min)졸업
- 한일장신대학교 명예신학박사(D.D)
- 전, CBS재단이사장
- 현, 한·중 기독교 교류회 상임대표회장
- 한소망교회 위임목사

저서로는 「품성」(와웹퍼블)
「아! 대한민국」(한국장로교출판사)
「꿈대로 되는 교회」(나침판) 등 40권이 있다.



| 거 | 창 | 고 | 등 | 학 | 교 | 이 | 야 | 기 |

거창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③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무료 복음병원설립

전영창은 1947년 30세의 나이로 미국 웨스터민스터신학교에 입학해 유학생으로 푸른 꿈을 키우고 있던 중 1950년 6월25일 일요일 새벽에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해 왔다. 그때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군전력은 6일정도 버틸 만한 정도였다고 했었다.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놓였음을 알고 전영창은 졸업을 포기하고 귀국을 결심한다. 학교는 고심 끝에 그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 졸업을 허용한다. 호주머니에 단돈 2달러 밖에 없는 전영창에게 메이틀우드 교회의 게리드윗 목사가 1000달러를 마련해주어 귀국하게 된다. 그는 귀국 즉시 경남 구제위원회를 만들어 모금한 5000달러를 들고 UN 민사원조처를 찾아가 우리나라에 의료진을 파견한 노르웨이 책임자 넬슨에게 돈을 내밀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당신의 애국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병원을 설립한다면 전폭적으로 밀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매일 50인분의 약을 우리 민사원조처가 원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전영창의 유창한 영어회화 실력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전영창은 한상동 목사와 함께 의사 장기려를 찾아가 병원 설립을 하기로 뜻을 모은다. 전영창은 장기려 박사님에게 “병원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장기려 박사는 “뭐가 좋을까요? 그건 전영창 선생님이 한번 지어보세요.” 라고

말하자 “복음병원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준다는 뜻인데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병원 이름이 결정됐다. 신바람이난 전영창은 부산 영도구남창동에있던 제3영도교회 창고를 병원자리로 정하고 1951년 6월22일자로 복음병원으로 개원했다. 치료비를 한푼도 받지 않는 무료병원엔 하루가 멀다 하고 환자가 늘어났다. 2개월 지나자 모금한 돈도 바닥이 났고 입원실이 부족해지자 UN민사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 약속 받아 놓은, 매일 50인분의 약과 대형 군용 천막 3개를 원조받아 병원에서 300~400M 거리에 있는 영선초등학교 옆에 있는 800평의 빈터에 ‘ㄷ’자 형으로 천막 병원을 차려 환자를 많이 수용할 수 있었다. 의사는 장기려 박사 한 분밖에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다. 하루에 평균 130~14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많을 땐 2백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 왔다. 지친 몸에 시간이 없어 점심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 무료환자의 무급의사인 것이다. 월급이 없으니 의사를 더 모셔올 수도 없었다. 영어회화에 유창한 전영창이 외국인을 상대하여 어려운 일을 풀고 기도에 매달렸다. 그런 상황 중에 부산에 10명의 가족들과 피난 온 카톨릭 의대 내과 교수인 전종휘 박사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찾아왔다. 그는 장기려 박사의 경성의전 3년 후배이다. 이렇게 해서 외과(장기려) 내과(전종휘) 의사가

갖춰졌다. 전종휘가 온 후 한달에 한번 병원문을 닫고 무의촌을 찾아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다. 주로 의사 얼굴을 한번도 본일이 없고 병원이라는 곳이가 본일이 없는 가난한 행려 병자를 찾아나선 것이다. 전영창, 장기려, 전종휘 세 사람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6.25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나라의 존폐가 풍전 등화 같은 위험 중에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다. 전영창은 병원의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를 맡았고 오재길은 서무 경리 약국을 맡았고 김재명 김순리 이금숙은 간호원으로, 운전은 김정일이 맡았다. 이렇게 병원 식구는 모두 11명이며 그들에게 딸린 가족까지 합하면 모두 44명이나 되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셨다. 미국의 개혁선교회가 복음병원의 딱한 사정을 알고 다달이 500달러씩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다. 44명이 이 돈으로 한달을 살아야 했다. 전영창, 장기려, 전종휘는 이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심했다. 직원들의 월급으로만 이 돈을 쓰면 병원 운영은 어떻게 할지가 걱정이었다. 장기려는 이북에서 남한으로 잠시 피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와 다른 가족은 이북에 두고 아들 한 명만 데리고 월남했으니 식구가 단 2명인데 원장이라고 월급을 많이 가져가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전종휘는 식구가 10명인데 식구 수대로 월급을 준다면 식구가 두 명인 장기려와 운전기사 월급이 똑 같은 것도 이상하다고 반대의견도 나왔으나 장기려 원장은 식구 수대로 월급을 주기로 밀어 부쳤다. 병원원장과 운전기사 월급이 똑 같은 병원이 되어 버렸다. 운전기사인 김정일은 자기의 월급은 병원장과 똑 같은 액수를 받는다고 병원을 자랑하고 다녔다. (다음호에 계속)



전영창



장기려



글쓴이 _ 장호찬 시인

- 거창고등학교 6회 졸업
- 고려대학교 문리과대학 생물학과 졸업
- 거창고등학교 교감 · 교장직무대리
- 상명대학교부속여자중 · 고 교장 정년퇴임
- 거창고등학교 15대, 16대 총동문회장 역임
- 현 거창출신 고려대학교 재경 거창동문회 회장



유펜치과 의원

University of Pennsylvania
www.unpenndc.com

원 장 김 윤 호 | 28회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11 강남상가 206호
전화 : 031-528-2803 팩스 : 031-528-2809

기억과 추억을 넘어서

| 이현국 19회 |

선택, 나는 스스로 모교인 거창고를 선택하지 않았다. 거창고가 나를 선택했다.

내가 면소재지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 나는 ‘공부를 좀 했으니 고등학교를 간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지, 진학에 대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의지가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당시의 시대 상황은 물론 개인 환경 탓이 컸다. 나의 출신성분이나 당시 나의 세계관이 한마디로 흠수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거창 읍에 가 본 일이 없었고, 가야할 필요성도 없었다. 당시 5일장과 면소재지에 준비한 가게들(店房)이 시장경제의 전부였지만, 생활에의 욕구와 욕망이 그 안에 간혀 있었던 탓에 외부와의 교류 필요성도 못 느꼈고 그럴 기회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진학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매체가 전혀 없었고, 주변에 진로에 대한 멘토가 되어 줄만한 모델도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 모 실업계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공납금을 면제해준다는 제안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고, 부모님은 나의 장래 목표를 ‘면서기’로 정해주신 상태인 지라 진학에 대한 절박함이나 긴박감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모교 은사님과 중학교 선배 출신 한 분이 학생 유치를 위해 우리 집을 방문한 것이다. 소위 우수학생 유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학생을 찾아다니던 시절이었다(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모교에 들어간 후 배 동문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모교의 은사님과 선배의 방문은 내 인생의 극적 전환점이 된 인생일대의 사건이 된 셈이다. 인생 전체에서 보면 그 당시는 정말 아찔하고 전율스러운 순간이었다. ‘면서기’가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설계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일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잘 선택할 수 없다면, 선택을 받는 것이 도리어 큰 은총이 될 수 있음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입학 후 학교생활의 긍정적 동인으로 작용했다. 모교의 교육에 대한 100% 신뢰와 맹목적일 정도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계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인생 설계가 새로이 시작되었다. 그것도 거의 백지 상태에서.

청운(靑雲)의 꿈, “男兒立志出鄉關 學若無成不復還”(남자가 뜻을 세우고 고향을 떠나서, 학문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채플 시간에 고 전영창 교장선생님으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구절이다. 당시에는 멀기만 한 거창, 객지에서 공부하는 나의 처지에 딱 맞는 말이었다. 모교에 입학할 때조차도 대학 진학에 대한 꿈 자체를 껴본 일이 없었던 것 같다. 당시 향토 출신의 대학생을 접해본 일도 없었고, 또 당시 농촌 경제 형편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주 한 번 있는 채플 시간, 그 때 교장선생님은 하나님 얘기보다는 세상살이 얘기를 더 많이 하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지 모르지만 몇 번의 채플 시간을 통해서 입학하던 해, 봄이 채 가기도 전에 내 마음 속에는 어느 듯 대학 진학이 필수사항으로 각인되고, 청운의 꿈이 되었다. 이러한 청운의 꿈이 있었기에 이후 ‘남아입지’의 목표를 학문하는 일에 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삶의 중요한 지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빛과 소금이 되여라’.

‘여호와를’은 재학 당시 교사(敎舍) 입구 두 그루 전 나무(?) 사이에 걸려 있던 교훈이다. ‘빛과 소금’은 재학 중 가장 많이 들었던 글귀이자 가르침의 하나였던 것 같다. 솔직히 나는 이 교훈이나 글귀를 복음으로 인식하거나 기억하지는 않았던 같다. 만약 복음으로 인식했다면 오히려 이 글귀가 이 순간까지 생생하게 기억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인생의 격언 혹은 명언으로 받아들인 것 같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어쨌거나 이 가르침은 향후 살아가면서 끊임은 자기 성찰의 내적 동인이 되었고,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했다. 스스로 성실하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도덕적 양심의 근원으로서, 또한 부조리와 타협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대의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생활 규범으로서 소중한 인생의 덕목이 되었던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인성 교육의 실천적 지표가 되어주기도 했다. 스스로를 내세워서가 아니라 오로지 모교의 가르침에 대한 자긍심을 밑천으로 해서.

사회적 정의감과 불굴의 의지, ‘We shall overcome’.

입학해서 몇 달이 지났는지 기억조차 흐릿하지만, 무슨 시국 사건으로 데모를 하게 되었다. 선배들의 독려로 우리는 읍내 중심지로 진출, 가두시위를 하게 되었다. 아무 것도 모르고 대오의 선두 쪽에서 행진을 하던 나는 경찰의 저지로 멈춰 선 데모대의 대열이 앞으로 밀리면서 길바닥에 깔려 죽을 고비를 넘겼다(당시 차고 있던 손목시계의 유리가 박살났을 정도이니).

대오가 정비되고 정신을 차려 일어서니 조금 전까지 데모를 말리시던 교장선생님이 앞장서서 흑인 가스펠 ‘Weshall overcome’을 선창하면서 데모대를 이끌고 계신 것이 아닌가. 당시 시국사건 관련으로 시위를 한 고등학교는 거창고가 유일무이했고, 더욱이 교장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했다는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었나 싶다.

채플 시간이면 교장선생님은 어김없이 당시 군사독재 정부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하시곤 했다. 그것도 정보원이 강당 뒤 쪽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교장선생님의 불의에 대한 두려움 없는 불굴의 용기와 신념, 그 실천적 열정은 지금 생각해도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이다. 가르침의 일관된 요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정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당시 학교의 분위기와 가르침은 이후 개인

적 반골 성향의 기질을 형성하는 깊은 무의식으로 작용한 것 같다.

몸에 밴 이 반골기질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 불의에 대한 분노감, 이기심을 극복한 합리적 이성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과 사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비타협성으로 인해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성장하면서는 나는 이 가스펠을 내 처지에 맞게 확대 해석해서 사필귀정, 칠전팔기의 의미로 받아들여 갈등 해결의 낙관적 결론에 대한 신념,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의지로 삼았다.

창의적 교육의 이상, 여름 풀베기, 가을 고구마 캐기 그리고 겨울 토끼몰이, 1박 2일 소풍, 수준별 분반, 무감독 시험 등등.

이러한 사례들은 당시 모교에서만 시행한 교육활동들이다. 입학하던 해 봄에 농장에 가서 사과나무(?) 식재용 구덩이 파는 작업을 했다. 가로 세로 1미터 정도를 파야 되는, 체력이 좋지 않은 나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다. 별 생각 없이(사실은 시간이 되면 집에 보내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귀가를 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고 나중에는 1학년생들만 남아 있는 형국이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것, 알아서 스스로 책임을 다한 자만이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물론 이후 졸업 때까지 자율과 책임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시행착오는 없었다.

모교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교육 활동들은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에 있어서도 매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것들로 생각된다. 이후 교육 현장에 종사하면서 항상 교육 현실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었는데, 그 빌미가 바로 거창고에서 체험한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이었다. 대학 졸업 후 학위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몇 년 재직하는 동안, 획일화된 교육 현장과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결핍감은 나를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채찍질이 되기도 했는데, 항상 그 이상과 기준이 모교였던 것이다.

모교는 나의 교육적 자신감과 자긍심의 원천이었다. 마치 교육에 대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성과의 소유자 처럼. 교단에 종사하면서 좋은 교육적 자산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이후 모교의 교육적 성과가 이미 외부에 많이 알려진 덕택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모교의 교육적 가치를 전파하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이었다. 나는 비록 모교에서는 아니지만 모교의 교육적 신념과 가치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모교에서 받은 그 많은 은혜의 일부는 갚지 않았나하고 자위하고 있다.

모교의 교육적 영향은 졸업생마다 각기 다를 것이다. 나에게 거창고는 내 운명이 바뀔 정도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고, 철었던 시절 청운의 꿈을 심어준 곳, 장래의 꿈을 이루게 한 신념과 의지를 길러 준 곳, 그리고 개인적·사회적 삶의 지침을 얻은 곳, 교육자로 종사하는데 필요한 훌륭한 교육적 자산과 이상을 물려받은 곳, 한마디로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인생에서 거창고는 가장 정채 있는 기억과 추억이 스며 있는 곳, 아니 기억과 추억을 넘어서 삶의 스승이다.

이현국 | 안동과학대학교 교수 퇴임

동·문·행·사

총동문회 임원과 지역 임원들이 대전에서 총동문 워크숍을 가졌고 대학 재학생 동문회는 전국의 대학 재학생들이 모여 동문 선배님의 강연을 듣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에는 34회, 2018년에는 35회 졸업생이 은사님을 모시고 홈커밍데이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총동문회 WORKSHOP



● 총동문 임원진 워크샵 대전 유성에서 (2017)



● 총동문 임원진 워크샵 대전 유성에서 (2018)

Home coming day



● 34회 그리운 친구들 (2017)



● 34회 노아의 방주? (2017)



● 35회 환영 리셉션 중 (2018)



● 35회 본관 현관 앞에서 (2018)



● 대학 재학생 동문회 (2017)



● 대학 재학생 동문회 (2018)

| 한상훈 | 49회 |



G 강남 부부 치과
임플란트 틀니 전문병원 치주과전문진료

사천시 벌리로5 삼천포북부농협(터미널) 3층 예약문의 055)834-2875

| 박경범 | 49회 |



바름
바름한의원

진료 1과 : 근골격계질환 / 진료 2과 : 소아·여성질환·다이어트클리닉
진주시 진주대로 880(칠암동 429-5) 4·5층 예약문의 752-3972

참 좋은 학교

| 김형식 11회 |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장 오래 가슴에 남는 기억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highlight는 무엇이었을까? 새벽에 눈이 뜨여 짧은 기도를 할 때도 스스로에게 물어 보곤 한다. 아무래도 죽전 동산의 향수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거고로 유학해 왔다. 남들은 모두 서울, 대구 최소한 진주 유학을 생각하는데, 나는 거꾸로 서울에서 거창으로 유학을 왔다. 제일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 모두가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의 명문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는 정작 서울에서도 그런 대학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내 거창 유학은 시작되었다. 학교는 매우 가난했다. 학생들도 부모님들이 가난하니 마찬가지로 가난했다. 주말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쌀 한말씩을 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풋 된장 하나로 반찬을 하는 자취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학교도 가난하고 학생들도 비록 가난한 농촌의 학생들이었지만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을 시키는 등 성적이 탁월한 고등학교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본래가 낙천적이고 적극적이어서인지, 딱히 불평, 불만은 없다.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아서 그중에 한세 가지를 나누고 싶다.

나는 거고에서 공부를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서울타지 사람이 거창 본 바닥에서 학생회장을 했다. 나름대로 업적(?)을 남기겠다고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탁구대를 만들어 학교 강당의 뒤흘에 모셔 뒀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이걸 제일 못 마땅히 여기는 분이 전 영창 교장 선생님이었다. 어느 날 그분은 도끼 한 자루를 가지고 오셔서 그 환영 받던 탁구대를 완전히 부셔 놓으셨다. 어느 누구도 감히 항의를 할 수 없었다. 그때, 그분의 표정은 마치 그분의 별명대로 성난 ‘곰’ 같았다. ‘공부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탁구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에 대한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추억이 많다. 그분의 ‘훈화’는 최근의 인기 유튜브 강의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훈화 말씀을 모두 메모했다.

대학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거의 마칠 무렵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가난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밤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수위를 한다고 너무 무리 했던 것 같다.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인천 연수동 근처의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는데 하루는 방문객이 있단다. 나에게 방문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방문을 왔을까? 그런데 뜻밖에도 방문객은 전 영창 교장님이였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죽히 하룻길인데! 내가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분이 유일한 방문객이었다. 그분은 학교를 위한 기금 모금 등으로 대단히 분주하신 분이었는데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러 오셨단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청계천에서 중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 가지고 다시 병원을 방문하셨다. 그분은 병상에 누워있는 내가 라디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나는 그분이 라디오를 사주실 수 있다고 기대도 하지 않았으며 값도 상당히 비쌌을 것이다.

우리 학교는 하도 가난해서 교사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 못하고, 식사도 거의 대부분 감자, 국수와 콩보리밥만 먹는다 소문이 나있었기 때문에, 교장님으로 라디오 같은 것은 기대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 분은 새것을 못 사주어 내내 미안하다고 하셨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라디오는 내가 긴 시간 안정을 취하는 10개월 동안 많은 음악을 듣게 해주었다.

69년 말 나는 런던정경대학원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마침 네덜란드에 학교 건축을 위한 기금 모금 차 유럽에 오셨으니, 만나자고 하셨다. 런던 히스로 국제공항에 마중을 나갔는데 마치 TV 방송국의 기자처럼 카메라, 슬라이드며, 스크린 등 어마어마한 장비를 짊어지고 나오셨다. 모금에 필요한 자료와 장비였다. 런던의 국회의사당이 바라보이는 테임즈 강을 건너면서도 주변의 경치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눈만 감고 계셨다. 숙소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하시고, 침실로 올라가서서도 “형식아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하시며 나를 부르셨다. 그분의 기도와 집념 덕분에 지붕이 빨간 거창고등학교의 건물이 지어졌다.

그 후 1975년 말, 내가 호주의 퀸즈랜드에 재직하게 되었는데, 호주의 낙농사업을 견학하시고 거고농장에 소개하시고 싶어 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호주 방문을 주선하던 중 급성폐혈 증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치료만 하셨어도 생명은 건지셨을 터인데, 너무 과로 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학교의 전 영창교장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셨고 우리 모두는 그분을 존경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는 그분으로부터 세 가지 큰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는 그분이 즐겨 하시던 미국 선교사가 일본을 떠나며 일본 학생들에게 했다는 “청년이여 대망을 품어라”라는 훈화의 말씀이다. 이 훈화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물론 학생들은 각자 다른 의미로 이 ‘대망’의 의미를 받아들였겠지만, 내게는 그분의 가르침은 분명했다. 즉, ‘대망을 품어라’는 것은 개인 혼자만의 입신양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약하고, 가난하고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이셨다. 이것이 내 삶의 비전이자 미션이 되도록 애쓴 것은 거짓이 아니다.

두 번째의 가르침은 직업선택의 십계(十誡)이다. 즉;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비탈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행여 우리가 물질적 탐욕에 빠질까 걱정하셨던 것 같다.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나눔의 삶,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 실천의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졸업생들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도록 기대 하였던 것 같다.,

아마도 세 번째 가르침은 민족정신이었던 것 같다. 고등학생인 내게는 벅찬 것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도록’ 가르치셨고, 독재와 부패에 분노하도록 하셨다. 이 민족 정신 속에는 다분히 기독교적인 화해의 가르침이 있었다. 이러한 가르침은 두고 두고 나를 일깨워 주는 평생의 가르침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도전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내 연구 논문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분단을 극복 하는 통일과 평화에 관한 것,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운동, 국제, NGO에 관한 것이 여러 편 된다.

나는 우리 모교를 참 좋은 학교라고 늘 생각했다. 전 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과 선배들, 그리고 학업 성적이 탁월하지 못했던 내가 대학에 진학해서 희망하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교수까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에서 공부도 할 수 있었다. 영국의 명문 런던 정경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유학할 때 비로서 “아, 명문은 바로 이런 곳이 명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생각하는 ‘명문’이란 ‘내가 뛰어난 학생이 아니어도,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학교의 전통과 분위기 때문에 저절로 동기 유발이 되어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들고, 실력이 향상되는 곳’이다. 이렇게 본다면 나는 분명히 명문 거창고등학교 졸업생이다. 호주와 한국의 대학에 재직하면서 이런 저런 서적을 아홉 권 정도 출판했는데, 저자 소개에는 언제나 거창고등학교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청년들에게 꿈과, 대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은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아무리 자기 계발을 하고 스펙을 쌓아도 3포, 5포, 심지어는 n포 시대에서 헤매는 후배 졸업생들에게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려질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떠날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염려는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자포자기’가 없을 것이며,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김형식 | 유엔 장애인권리 전문위원, 한국대표 (2011~18)

석좌교수, 뉴욕 주립대학교 송도 캠퍼스

hskimmosman@gmail.com

기·수·별·모·임

전국으로 분포되어 있는 거창고 동문들은 지역 동문 모임과 별도로 기수별 지역 모임을 가지며 매년 혹은 격년으로 기수별 전국모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기수별 소모임이 늘어나 동문회 발전에 모태가 되길 기대해 본다.



● 13회 졸업 52주년 전국모임(2018)



● 17회 여수에서 아름다운사람들과 가을여행(2018)



● 25회 이태순동문의 재경회장취임을 축하하며(2018)



● 26회 돌아가는 삼각지에서 재경모임(2018)



● 28회 계룡산 남매탐에서(2018)



● 29회 경남 사천 공룡발자국을 찾아서(2018)



● 32회 계룡산 동학사에서 사모산악회(2018)



● 33회 정동진 바닷길에서 재경모임(2018)



Plastic Surgery

성형외과전문의 원장/의학박사 유 용 아 | 41회
(35233)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0(둔산동) LG전자베스트샵 B동 4층
T . 042 482 9933 F . 042 482 9966 Mobile . 010-9102-2945 E-mail . yongaryu@hanmail.net

숨은그림성형외과
Plastic Surgery



知天命을 눈 앞에 두고

| 배용화 36회 |

70년 개띠, 올해 마흔 아홉이다. 1995년 KBS PD로 입사해서 창원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한 지 20여 년,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제법 인기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동물의 건축술』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방송대상과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조직 내에서는 제법 회자가 되었던 나름 지역 최연소 편성제작국장이었다. 부끄럽지만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가끔 듣기도 했다. 교사를 하는 아내를 만나 딸과 아들을 하나씩 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이루었으니 실패한 인생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20대의 무모함을 지나고 30대의 패기와 용기를 맘껏 펼친 후 ‘세상의 온갖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을 한참 넘어 일찍이 공자께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는 나이’라 일컬은 지천명으로 가는 길목의 모퉁이쯤에서 있는 나이다. 지천명에서 말하는 하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의 나는 과연 세상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만큼 성숙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문득 내 자신이 대답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기도 하다.

‘세상은 알 수 없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현실에 가장 어울리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현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된 뒤 감옥에 간 일은 역사적 사건이자 충격이다. 그렇게 정권이 교체되고 5개월의 기나긴 파업을 거치면서 내가 다니는 KBS도 사장이 바뀌었고 조직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프로그램 제작하는 일보다는 노조나 협회의 일을 하면서 사내정치를 하던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자 그동안 받았던 차별과 무시를 보상이라도 받을 듯이 보직을 나눠가지고 있다. 운칠기삼(運七技三), 인생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우연적 요소, 주변환경, 인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서 회사일을 오래 하다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인적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열심히 일해서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내적인 성장이나, 인간관계나 조직

의 정치에 발을 들여놓아 획득한 승진이나 보직이라는 외적인 성장이나의 선택은 결국 자기의 몫이다.

KBS조직 내 인적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나는 외로운 섬은 아니다. 창원에서 같이 일했던 친한 선배 중 한 명은 직속부서 국장이 되었고 다른 선배는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 편성제작국장을 하던 PD는 현재 KBS사장이 되었다. 게다가 놀랍게도 현 KBS이사가 친한 36회 동기의 장인이름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굉장히 탄탄한 인맥이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누구에게든 인사청탁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요즘말로 하면 ‘1’도 없다)는 게 문제다. 누구는 사람 사귀고 관계 맺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난 성격이 오지람이 넓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청탁을 해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전혀 없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현재의 일을 개선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실용적 진보주의자일 뿐이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거고 출신은 개별적으로는 우수하네 뭉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아마도 각자의 개성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도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탓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각자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은 늘 한다. 훌륭한 의사도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는 선배도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도 많다. 나도 지금은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지만 늘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까? 맛에 절대적인 기준은 있는가? 한달살이 등 관심사는 무궁무진하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 흔들림 없는 자세다.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것은 올해 85세 되신 어머니의 건강이다. 평생 농사일만 하시면서 40년이 넘도록 약을 밥먹듯이 복용해온 부작용인지, 허리디스크 수술을 몇

번이나 한 탓인지 거동이 불편하다. 몇 달 전, 넘어져 119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후송된 후 수술을 받은 다음 병문안 갔을 때 서럽게 울던 그 얼굴이 아직도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자식들에게 버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밀려왔을 절망감이라는 걸 우리가 어찌 상상이나 하겠는가? 가난하고 못배운 엄마에 대한 원망, 남들처럼 넉넉한 환경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정신적 안식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엄마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등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음이 아팠다. 지금 생각하면 다 지난 일이다. 지금의 고민 또한 지나가리라. 입원해 계신 병원에 더 자주 들러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 생각한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 고민은 거창고 30년 후배인 딸과 아내가 교사로 일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다. 딸은 고3이라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어 걱정이고 아들은 공부는 죽어라 안하고 아무 생각없이 사는 것 같아 이리다 대학이나 제대로 들어갈까 걱정이다. 온갖 걱정뿐이다.

지천명을 바로 눈 앞에 두고 ‘천명’을 알기는커녕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무슨 하늘의 뜻이니 순리니 하는 말은 다 사치스런 말의 잔치일 뿐이다. 혼란스러울수록 본질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내년이면 졸업 후 30년, 흠커밍데이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내 청춘의 첫머리부터 되짚어봐야 할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수많은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이 많지만 여전히 머릿속에 또렷하게 박제되어 있는 말이 있다. ‘작은 일에 충실하라.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라’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이다. 가족, 친구, 동문과 동창, 회사사람, 주변의 이웃까지도 소중한 사람들이며 인연들이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영영 인연의 끈이 끊어질지도 모른다. 별처럼 반짝이지는 않지만 소리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하는 빛과 소금의 존재와 같이 오늘도 열심히 살자! 봄별이 유난히도 따스한 어느날, 갖가지 상념에 젖어 내 나이와 내 앞길을 생각해 본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리고 아등바등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생각을 해 본다.

며칠 전, 국장이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다. “회사가 필요로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주적60분 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전 또 당장 눈앞에 닥친 고민이고 걱정거리다. 지천명의 경지는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

배용화 | KBS 추적60분 담당 PD



대표이사
배동현(22회)

(주)한국클래드텍은 클래드제조에 있어서 높은 성장가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래드메탈이라는 신소재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단일 금속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만을 결합하여 이를 극대화했습니다. POSCO와 함께 국내외 주방재, 산업재를 생산하는 여러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자체 브랜드인 '소댕'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여 주방용품 시장의 진입으로 더욱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클래드텍은 소재 발전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며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진할 것입니다.

|주|한국클래드텍

본사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동 1로 89
한국클래드텍 홈페이지 : www.koreaclad.com 소댕 홈페이지 : www.sauten.com



모 · 교 · 소 · 식



▲ 2018년 3월 2일 오전 10시, 제 68회 입학식이 열렸다.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은 98명(남학생 57명, 여학생 41명)의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 2018년 5월 19일은 35회 졸업생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렸다. 30년 만에 100여 명의 동문, 20여 명의 선생님들이 모였다.



▲ 2018년 8월 21일, '해설이 있는 초청음악회'에서 트리오헤만(Trio Heman)이 고전 및 낭만파클래식음악을 연주하였다. 본교 졸업생 김복춘(피아노/56회), 김욱(첼로/59회), 박서영(바이올린/62회) 및 박하영 (음악감독/60회)으로 구성되어 관객과의 친밀한 교감이 돋보였다.



▲ 2018년 4월 2일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유가족 극단 '노란리본'은 코메디작품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에서 유가족들이 받는 차별과 아픔에 공감하고 이웃과의 단절을 극복하자는 교훈을 얻었다.



▲ 2018년 6월 16일, 총동문 체육대회가 열렸다. 300여 명의 동문들이 배구, 족구 등 구기종목과 림보, OX 퀴즈 등의 레크레이션 활동에 참가하여 친목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 2018년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을예술제가 열렸다.



▲ 2018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봄예술제가 열렸다.



▲ 2018년 7월 13일, 68회 학생회 선거를 치렀다. 회장에 원대한(2학년) 학생, 부회장에 안겸비(1학년) 학생이 당선되었다.



▲ 본관 나무바닥 공사, 운동장 마사토 교체 및 체육실(구령대) 설치 공사 중이다.

2019학년도 거창고 대입 진학 현황

2019. 01. 29. 현재

대 학	인 원	대 학	인 원	대 학	인 원
가톨릭대	1	부경대	2	이화여대	5
건국대(글)	1	부산대	9	인하대	1
경북대	6	서강대	2	제주대	2
경상대	3	서울대	10	중앙대	1
경희대	5	성균관대	7	충북대	1
계명대	2	세종대	2	포항공대	1
고려대	7	숙명여대	1	한국교원대	1
고신대	1	안동대	1	한국외대	1
공사	1	연세대	5	한국해양대	1
국민대	2	영남대	1	한남대	1
단국대(천안)	1	오사카부립대	1	한림대	1
동국대(경주)	1	오사카예술대	1	한양대	5
디지스트	2	원광대	1	한양대(에리카)	1
목포해양대	1	유니스트	1	홍익대	3

보철전문
고른이치과
GOREUNE DENTAL CLINIC

원 장 김 종 진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 878번지(5F) (칠곡 운암역 맞은편)
TEL | 053.322.4321~2 FAX | 053.324.5526

지·부·소·식



서울, 경인 동문회

재경거창고등학교 동문회는 2018년 11월 29일 (목) 삼성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이상대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2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재경거창고등학교 송년회 및 정기총회 행사를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22대 강신기(24회) 회장님의 뒤를 이어 이태순(25회) 동문이 23대 재경동문회를 이끌어 갈 신임회장에 임명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재경 동문회 활동을 돌아보고 이승한(41회) 동문의 축하공연과 오페라 가수 임철호님의 축하공연과 더불어 호텔숙박권을 비롯한 푸짐한 경품 추첨이 이루어졌으며 참석한 동문들이 1년간의 추억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재경 동문회에는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재경 동문들의 등산 모임인 거동산모(회장 26회 이종길)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인 산행을 하고 있고, 골프모임인 죽전회(회장 21회 정홍일)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월례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마라톤 동호회인 거동달모(회장 29회 임진택)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연습과 국내외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거창 동문회

거창지구동문회(회장 이성화)에서는 19. 1. 10. 거창읍에 위치한 거창컨벤션웨딩홀에서 신년회를 갖고 거창지구 동문들의 단합과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전성은 이사장, 박치용 거고 교장, 도재원 전 이사장 등 동문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원로 이신 4회 신재범 동문을 비롯한 많은 원로 동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신년회는 거창지구 회장 환영사, 모교 박치용 교장 축사, 전성은 재단 이사장 축사 및 기수별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연말의 무겁고 들뜬 분위기를 피해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동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신년회로 준비하였다. 이성화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교와 동문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년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같은 지역에 같이 살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문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거창고등학교라는 하나의 끈으로 두 번 이어진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한 동문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다시 이어진 인연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2부 행사에서는 35회 박광수 사무국장이 준비한 게임 및 장기자랑 시간을 통해 준비한 경품을 전달하여 참석한 동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으며 이날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 50여점은 게임 등을 통하여 각 기별 동문회원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어 훈훈하면서도 뜻 깊은 신년회가 되었다.



부산 동문회

2018년 10월 27일 동문 및 가족등반행사(금정산)



2018년 12월 6일 동문 및 가족 송년의 밤행사중 공로패 수상식 가운데 부산동문회 회장 홍병철(28회)



연말송년회 행사



대구 동문회

총회, 송년의 밤 행사 | 재대구경북 거창고등학교 동문회는 2018년 12월 7일(금) 플로렌스대구점에서 이상대 총동문회장님과 6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주시찬(27회) 회장님의 뒤를 이어 신상용(28회) 동문이 신임회장에 임명되었고 다른 임원진은 유임되었다. 풍성한 식사와 교제의 시간으로 마련된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추억을 나누며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기에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산행 | 재대구경북 거창고등학교 동문산악회에서는 매월 산행이 진행된다. 2018년 7월 14일 가야산 소리길 산행에는 16명이 참여하여 날씨보다 더 뜨거운 동문회 사랑을 과시하였다. 산악회를 이끄시는 오삼용 회장님의 탱크 같은 추진력에 회원들의 신뢰는 대구경북 동문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대구경북 동문산악회가 특별한 이유는 산행 때마다 직접 빚어서 넉넉히 공급하는 주시찬(28회) 회장님의 막걸리의 맛에 여러 동문들이 중독되어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산, 창원 동문회

마산, 창원 동문회는 지역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매월 다양한 모임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3월에는 조달청 앞 금우식당과 중앙동 개성집에서, 4월에는 소계동 감자탕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지난 5월에는 신태성(9회) 동문의 별장에서 모임을 가졌고 오창성(14회) 동문이 별장 앞 풍경을 즉석에서 그려 신태성동문께 선물해 주셨다. 6월에는 의령리온CC에서 골프모임을 가졌고, 9월 상반기 정기모임은 상남동 느티나무집에서 20명의 동문이 모임을 가졌다. 12월 상남동 준호참치에서 하반기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회장은 김복희(26회)과 총무 신대곤(37회)동문이 수고하고 있다. 많은 동문이 참석하길 기대한다.

이성인 | 27회 |



동성켄텍

Dongsung Chemtech

부산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341

사무실 . 757-1770, 973-2339 | 팩스 . 941-2771, 266-0111 | 핸드폰 . 010-8751-5534

홈페이지 . www.gc6890.com

화학분석장비 Total Solution Provider

Agilent GC, HPLC, GC/MSD 판매

GC, HPLC, MSD, 기타 분석장비 및 소모품을 판매/설치/응용교육/AS를 하고 있습니다.
AGILENT GC6890N, 7890B, HPLC1100, 1200 SERIES 등과
AGILENT, PHENOMENEX 소모품을 공급합니다.

- 30년경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분석장비전문기업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 인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기업
- 예산에 따라 중고GC, HPLC 또는 생체분광 분석 서비스
- 장비와 더불어 소모품공급 및 서비스
- 실험에 필요한 주변기기 공급 및 서비스





거창지구 동문 의사회

강대성 23회 | 경희한의원 | 055-944-7879

최창수 26회 | 최창수외과의원 | 055-944-1230

김영호 29회 | 김내과의원 | 055-945-2228

정규돈 29회 | 광보한의원 | 055-943-9155

이기식 30회 | 현대외과의원 | 055-943-7597

최광재 31회 | 최치과의원 | 055-944-1236

한창훈 33회 | 동재한치과의원 | 055-943-9189

김종복 35회 | 중앙치과 | 055-943-0563

동·호·회·소·식



거동산악회 동호회

거동산모(거창고 동문 등산 모임)는...

2004년 11월 27일 관악산 창립등산을 시작으로 2019년 1월까지 총 147회 정기등산을 통해 동문 선후배간의 건강과 우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산행'을 모토로 이제는 거동산모의 전통이 된 '거동산모탕', 겨울의 전통 '눈꽃산행' 그리고 봄가을의 꽃놀이, 단풍놀이 등 어느 하나도 유쾌하지 않은 적이 없는 꿀맛 같은 산행의 연속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심신에 피곤함이 스며들 때쯤 거동산모 선후배들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보약을 먹는 것에 다름없고, 마음 가득 청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며, 내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 정기산행 | 매월 세번째 토요일
- 등산문의 | 총무 : 신영자(29회) 010-3121-6952 회장 : 이종길(26회) 010-3227-5031

거동달모 동호회

거동달모는 '거창고등학교 동문들의 달리기 모임'이다. 즐달(즐겁게 달리기), 건달(건강 달리기)을 모토로 하여, 매주 수요일 저녁 월드컵 하늘공원 주차장에서 모여 하늘공원, 노을공원 둘레길을 달리며 건강과 동문들간의 우정을 다지고 있다. 또한 춘천(조선일보)마라톤, JTBC(중앙일보)마라톤, 동아마라톤 등을 비롯한 국내마라톤대회 참가뿐 아니라 상해·동경·보스톤·베를린·뉴욕·러시아 백야마라톤 등 국제마라톤대회에도 참가해 매주 정모에서 다져온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 정기 모임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상암 월드컵 하늘공원
- 문의 | 회장 임진택(29회) 010-5475-8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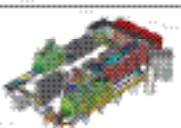
영업품목 도장기기 | 도장설비 | 환경설비 | 화학약품 | 정수장비

ISO 9001 인증 | INNO-BIZ 인증 | MAIN-BIZ 인증 | 벤처기업 인증

Field of Business

Painting Facilities

Pretreatment
Paint Spray Booth
Dry-Off / Curing Oven
AHU
Electro De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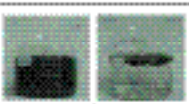
Anti-Pollution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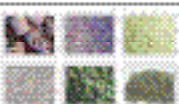
A/C Tower
Wet Scrubber
Dust Filter
RCO / RTO

CHEMICAL BUSINESS

Paint Killer
Cohesive, Coagulant
Pre-treatment chemicals
De-laminating chemicals



Catalyst



For Industrial purpose
For Mfg Process
Catalyst for Motor bike
RCO / RTO

Painting Plant

hst 한도에스티(주)

신상용 | 28회



Hando System Technology Co., Ltd.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5길 67(뉴방빌딩)

T. (053)583-4245 F. (053)583-4240

E-mail : handost@chol.com

http://www.handost.com www.bhec.co.kr



죽전골프 동호회 죽전회는 골프를 사랑하는 거고인의 모임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두번째 일요일 통상 8팀으로 12즈음하여 정기적인 라운딩을 하고있습니다^^

2019년도 3월부터 힐드로사이 CC(연부킹장소)에서 거고동문선배님들과 같이 즐겁게 라운딩하며 좋은시간 나누었습니다.

죽전회의 임원진은 정홍일(21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주금련(25회) 부회장님, 전범창(33회) 경기간사, 전상식(34회) 수석총무, 정혜연(34회) 연락총무로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 보다 자세한사항은
죽전회 수석총무 전상식 동문(010-9221-1184)께 문의바랍니다^^

FC죽전 축구 동호회 FC죽전 축구 동호회는 전국 모임으로 FC죽전 거창, 서울, 대구, 부산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제1회 전국대회(거창)를 시작으로 해마다 각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다가 5년 전부터는 거창에서만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10월 13일에는 아쉽게도 서울팀이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거창 2팀, 대구, 부산, 재학생 팀 100여 명이 참가하여 자웅을 겨룬 결과 거창 백호팀이 우승을 하였다.매주 토요일 운동장에 모여 선배배 간에 땀을 흘리면서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올해도 10월 거창에서 FC 죽전 전국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특허 제 10-1253519 / 1797930 호

CFT기둥 내진보강공법

기존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CFT접합장치를 설치하고 설치하고 CFT기둥을 접합장치에 용접하여 일체화 한 후 무수축 몰탈을 주입하여 기존 철근콘크리트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공법

CFT기둥 시공상세도

기존기둥, 에폭시 주입, 고성능몰탈 충전, CFT기둥 접합장치, C형 CFT기둥

www.hilleng.co.kr

우 종 열 | 27회 |
대표이사/공학박사/구조기술사

- (사)한국 건축구조기술사 영남지회 회장 역임
- 부산지방법원 감정위원
- 경상대학교 겸임교수
- 건설신기술협회 심의위원
- 국방부 심의위원

(주) HILL 엔지니어링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감로 244,3F
T. 051)323-7084~5 F. 051)323-7089
E. hat21@chol.com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65-1, 3F 301호
T. 053)721-6855 F. 053)721-6850

성은호 요양병원

외래 진료 & 건강검진실 운영(구_김내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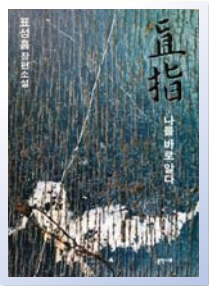
병원장 **김은호** | 29회 |

- 입원실 · 외래진료
- 내시경클리닉
- 건강검진실
- 재활물리치료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55 성은빌딩
T. 055)945-2228 F. 055)945-2229

— 시사매거진 2018.9 거창군편 '거창군 지역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소개되었습니다.

▶ 동문 책 소개



표성흠(11회) 장편소설
[직자-나를 바로 알다]

이책은 작가의 여러 번에 걸친 캄보디아 취재와 또한 일 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아낸 삶의 체험을 담아낸 장편소설로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구도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동시에 소설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법의 실험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소설의 배경은 캄보디아 베트남 타이 라오스 중국 등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앙코르 유적들과, 수많은 힌두신전들과 힌두신화들을 등장한다. 그래서 내용이 풍성하다. 또한 작가는 이 소설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직지심체요절>의 내용과 전래과정, 그리고 베트남 전에서 뿌려놓은 라이파이한의 문제, 후진국에 난립되고 있는 한글학교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직지는 다채로운 이야기 구조 속에 담아내고 있다.



표영수(4회) 시집
[하루의 꽃]

이시집은 삶의 연륜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간의 사랑이 담겨있다. “이것으로 내가 받은 사랑의 빛이/탕감되기가 할까만/ 내가 만났던 모든 이들과 만상들/ 미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고마웠다는/ 내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시인의 말 그대로 78편의 시들이 [하루의 꽃] 시집에 담겨 사람과 만상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야기꽃으로 피어나고 있다.

▶ 동문 전시회 및 공연



목원 허허(14회) 전시계획

- 부산100경 | 금정구편전 2019, 5월
- 우리그림 | 정화전 2019, 10월
- 기획초대전이 있을 예정임.



이태근(11회) 전시

- 전시일정 | 2018.6.18(월) ~ 6.29(금)
- 초대일시 | 2018.6.18(월) 오후 1시 30분
- 전시장소 | 서울 동부구치소 송림갤러리

교정시설과 미술작품의 조화를 알리고 예술작품 감사를 통한 수용자 교정교화 목적에 의 미부여



수원화성에서 로마까지(부분), 55×160cm, 장지에 연필, 2018

오세철(42회) 전시

- 오세철 제7회 개인전 '로마에서 수원화성까지'
- 2018.10.31~11.5, 갤러리이즈(서울 인사동)

화가 오세철은 우리의 전통종이인 장지(壯紙)를 개량해 그 위로 가장 낯것의 재료인 연필을 이용한 그만의 기법으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해나가고 있다.



오토리오 헤만(Trio Heman) 순회 연주회

- 2018년 8월 21일 거창고등학교 강당
- 018년 12월 26일 거창공업고등학교,
- 2018년 12월 27일 대동교회
- 2018년 12월 27일 셋별중학교

김녹춘(피아노, 56회) | 김 욱 (첼로, 59회)
박서영(바이올린, 62회) | 박하영(기획, 해설, 60회)



김 영 국 | 32회 |

김영국내과의원

건강검진 전문의원

내시경 센터
위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87 (지하철 2호선 고산역 4번 출구 고산주민센터 옆)
T. (053)792-7767

동·문·회·문·단

거창고등학교, 욕조에서 월척을 낚은 곳

수필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보면 그 학적이 좋을 때는 별 탈이 없거나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이미지가 좋지 않거나 없어진 학교일 때에는 대략 난감이다. 나는 내가 다닌 거창고등학교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미지도 좋기 때문이다.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명함을 내밀면 '아, 거창에 살고 있군요. 거창에는 거창고등학교가 유명하던데...' 하게 되고 '내가 그 학교 11회 졸업생이고 선생도 조금 했지요' 라고 하면 금방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아주 공부 잘 한 수재로 대우받게 된다. 그러면 괜히 모교에 대한 자랑이 나오게 되고 토끼몰이며 이틀소풍, 축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마련이다. 이야기가 더 길어지면 대한민국 학교 중 수세식화장실을 최초로 설치한 곳이라느니 화장실에서 빵을 먹던 이야기며 담배 피다 들킨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어느듯 동질감을 느껴 친근감까지 느끼게 된다.

나는 4.19혁명이 일어났던 다음 해, 거창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교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혁명 바람을 타고 상고와 농고 심지어는 여고생까지 합세한 학생연합군들이 와 학교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은 중학교 다니며 이미 봐 온 터라 알고 있었지만 공부할 교실이 없다는 것은 몰랐었다. 우리는 벽돌을 찢어 날라 학교를 지어가며 나무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런 가을 어느 날 벽돌 나르기에 싫증이 난 나는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 함양의 천령예술제에 참가해 백일장 장원을 따오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국어선생님한테 '우리학교에 시인 났다'는 칭찬을 들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던가. 이때부터 나는 시인이 되었다. 시 외에는 일체 관심이 없어 공부는 뒷전이었다.

졸업 후 3년을 떠돌다가 대학을 들어갔지만 곧바로 군대에 가야 했다. 마침 운이 좋아 군대에서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세 번째 겨울〉이 당선됨으로 당당한 시인이 되었다. 전국의 문학도 중에서 1년에 겨우 다섯 명 뽑는 신춘문예였으니까, 당시만 해도 신춘문예 당선시인이란 상당한 대우를 받았다. 출판사나 잡지사 신문사 등에서 서로 오라했으니까... 취직자리가 여기 저기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과수원 농사를 짓겠다고 귀향하였다. 동네에서 대학생 1호인 내가 농사일을 하겠다고 나대니 집안에서는 못마땅해 했다. 어쨌거나 농사일을 시작해 한창 거름을 내고 있는데 전영창 교장이 급히 부른대서 학교에 가니, '국어선생이 없어 그러니 당장 교실로 들어가라' 하였다.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날로 선생노릇을 시작 했는데 밤 2시 이전에 잠을 자 본 일이 없을 만큼 교재준비에 바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변질돼 있었다.

—시인이 시를 가르치는 대도/ 학생들은 문제와 답만 가르쳐달라 한다./ 이런 학교 선생도 이제 치울까 보다...

그 당시 썼던 첫 시집 〈농부의집〉에 수록돼 있는 시의 한 구절이다. 급기야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소설공부를 해 125권의 책을 남긴 치열한 전업 작가 생활을 하였다. 작가로서는 비교적 성공한 셈이었다. 그런데 그 기저에 깔린 성공비법은 모두 거고에서 배웠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싶다. 내가 거고에서 배운 것은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되는 법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니라. 여호와를 뭘 원하는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 이 말을 먼저 생각한다면 모든 일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된다. 正道, 그게 내 생활신조였다.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는 내 정신적 지주였다는 이야기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언덕을 떠올린다.

그 언덕 '죽전만당'에는 시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키 큰 전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언제 누가 그런 나무를 베어버렸는지... 오래된 나무는 역사 그 자체인데 안타깝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며 상상으로나마 그 전나무 아래 서면 그 밑으로 난 작은 구름다리, 그 옆에 펼쳐진 작은 잔디밭, 그리고 침례세례를 받았던 욕조가 있는 2층 선교사네 집이 떠오른다. 내 인생은 이 욕조로부터 거듭난다. 욕조에서 월척을 낚은 것이다. 지금은 이 세상 분들이 아니지만 내게 세례를 준 전영창 교장 원경선 이사장 메카피씨 등은 내게 새 길을 열어준 스승님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또 한 마리 월척,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전나무 아래 작은 잔디밭에

서 벌어진 〈문학의 밤〉을 기억하고 있다. 거기서 한 여학생을 만나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두 마리 월척을 낚은 셈이다.

거고는 내 갈 길을 찾은 곳이며 동행자를 얻은 곳이기도 하다. 거창고등학교가 무엇보다 좋은 것은 남녀공학이라는 점이고 학창시절이 가장 순수무구한 시절이라 평생 동반자를 고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점이다. 누군가 이 말을 들으면 질겁할지 모르겠지만, 만날 수 있을 때 만남을 가꿀 줄 알아야 하리... 가꿀 수 있는 만남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우리는 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주례사를 하던 전영창 교장 선생은 '학교 다닐 때 둘이 연애하는 걸 알았더라면 퇴학을 시켰을 텐데 교장이 우문했던 탓으로 지금 주례를 서게 됐다'는 말로 하객들이 웃었던 기억이 난다. 벌써 반세기 전 이야기다. 알았으면 정말로 퇴학을 시켰을까? 우리가 쓴 책이 2백 권도 넘는, 이렇듯 성공한 연애를 두고...

그렇다. 그래도 거고가 거고 다운 건 특기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일 텐데, 비록 공부는 좀 등한시 해도 주특기를 살려나가는 학생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졸업생들 중에는 음악가 문학가 화가는 물론이고 탤런트 가수 등 수 많은 예술가들이 배출 되어 이 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를 빛내는 것은 오히려 공부 못한 저들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표성흠 (11회, 시인·소설가)

▶ 동문 동정

17회 강영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장
19회 정태식		산촌유학원 원장
20회 정동환		가조초등학교 교장
21회 김진석		함양수동중학교 교장
21회 조환용		함양제일고등학교 교장
22회 김도호		군인공제회 이사장
24회 고병길		거창중학교 교장
24회 문삼종		가조중학교 교장
24회 박종원		거창고등학교 교장
24회 이상갑		셋별중학교 교장
25회 심병용		묘산초등학교 교장
25회 형남출		창녕성산초등학교 교장
26회 양창호		창남초등학교 교장
26회 이규창		행안부 비상대비체험관장
26회 하상규		경락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27회 변명규		거창초등학교 교장
27회 오석근		한화그룹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부사장
27회 장재영		북상초등학교 교장
27회 전창원		빙그레 대표이사
27회 최윤현		합천야로중학교 교장
27회 황춘연		유림초등학교 교장
28회 유정석		현대L&C 대표이사
29회 신성범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위원장
29회 유상구		(주)글라세움 대표이사
29회 이일동		종합군수학교 병참 교육단장 (육군준장)
29회 이현수		코레이트자산운용 대표이사
31회 최종원		경기도 파주시장
33회 박철형		대한네트웍스 대표이사
34회 신용해		서울 남부구치소장
36회 손진욱		국무조정실?인사과장

▶ 2018년 총동문의날 행사 및 동문회보 제4호 협찬 현황

(단위 : 원)

4회		오태식		200,000	28회		신상용		800,000
5회		이영순		200,000	28회		유정석		300,000
8회		이찬현		100,000	28회		이상모		300,000
12회		김동성		100,000	29회		손영훈		100,000
17회		신태성		1,500,000	29회		김영효		200,000
17회		정옥상		1,000,000	29회		김종욱		500,000
18회		신중혁		500,000	31회		김두찬		200,000
18회		조현주		100,000	32회		김영국		500,000
19회		최민형		500,000	34회		김윤호		500,000
20회		류영모		1,000,000	34회		정영수		100,000
21회		정홍일		300,000	36회		김종진		500,000
22회		배동현		500,000	41회		유용아		1,000,000
23회		박치용		100,000	49회		박경범		250,000
23회		윤주식		100,000	49회		한상훈		250,000
24회		강신기		1,000,000	재경동문회				1,000,000
24회		이상대		5,000,000	부산동문회				1,000,000
25회		주금련		100,000	대구동문회				800,000
25회		박상철		300,000	진주동문회				500,000
25회		이성화		100,000	거창동문회				500,000
27회		민영호		200,000	창원동문회				500,000
27회		우종열		300,000	합천동문회				500,000
27회		이성인		300,000	산청동문회				300,000
28회		강성훈		100,000	울산동문회				300,000
28회		김석오		100,000	15회 동창회				300,000
28회		민관식		100,000	24회 동창회				1,000,000
28회		박운수		100,000	거창의사회				500,000
28회		백영옥		100,000					

감사합니다.

▶ 거창고동문회보 4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15회 | 2017년 12월에는 동해안 해파랑길 트랙팅을 가서 숙소앞 바닷가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24회 | 24회 동창생(회장 박상용) 등 23명은 2018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3박 5일간 베트남 하노이와 하롱베이 일대를 환갑여행을 겸한 동창회 여행을 다녀 왔다.

OUT-DOOR 및 WORK-WEAR용 고기능성 원단 개발, 생산, 영업부문 국내선두기업

(주)해원동상은 OUT-DOOR, CASUAL 및 WEAR용 고기능성 원단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OUT-DOOR(Climbing, Hunting, Ski 등) 및 WORK-WEAR(경찰복, 우체부복, 군복, 소방복 등), 특수유니폼(수술복, 간호사복 등) 등의 차별화된 원단공급을 통한 수출 1,000만불 달성에 이어 프리미엄 고기능성 소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HEYONE CORPORATION |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척로8길 13 T. (053)586-0192 F. (053)586-0198 E. heyone1997@heyone.com